



## 고체 추진기관 개발의 소회(所懷)



李太鎬  
國科研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

'78년 백금 유도탄 개발 이후  
우리의 유도탄 연구개발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로켓 개발의 후진국이 결코  
아니며 현재 성능 개량된 우수한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소련** 과 동구의 공산체제 붕괴로 세계는 미·소를 중심으로 군비축소가 진행되는 듯 했고, 이로 인한 평화무드 속에서 방위산업의 저조로 어처구니없게 실업 문제가 발생하여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낙선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방위산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시엔 민간인에게도 막대한 살상 효과를 내고 동시에 그 후유증이 심각한 원자력이나 화학방 무기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개발에 대해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와 병행하여 재래식 병기 개발도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프전에서 그 효능을 보여준 바 있는 유도무기, 즉 목표물에 명중시켜 효과를 발휘하는 정밀유도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욱더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 입소 이래 20년이 넘도록 추진기관 개발부에 근무해 오면서 최근 느끼는 것이 있어 소회(所懷)의 일단을 피력코자 합니다.

지난 1996년 5월 15일자 조선일보 27면에는 “2단 분리 로켓 내년중 완성”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 '국내 로켓 개발사에 신기원을 열게 될 2단 짜리 중형 로켓의 기술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최근 2단 로켓 중 하단부 1단 추진 장치의 지상연소시험과... '연내로 2단 로켓의 연소시험과 1~2단 분리 시험을 거쳐 계획대로 내년 9월쯤 국내 기술로 완성된 2단 로켓이 우리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으며,

2. "80년대말 독자적인 유도탄 개발이 좌절된 후 국산 로켓에 대한 열망은 '90년대에 들어서야 이어졌다. 항우연이 중심이 되어 '93년 두 차례에 걸쳐 1단 짜리 과학 로켓 1호와 2호가 잇따라 한반도 상공을 차고 오르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문기사 자체는 어차피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러기에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도는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사명인 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그 자체로 끝나 버리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많은 관계자들의 판단이 흐려질 우려가 농후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항공우주연구소가 개발하는 목적이 따로 있기에 그 동안 간간이 신문 기사화 또는 뉴스화되는 내용이 기술적인 면에서 정확하지 못했음에도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보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심지어는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軍에게까

지도 심각히 그릇된 판단 자료가 될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면 먼저 2단 중형 로켓 개발의 순조로움과 로켓 개발사 신기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로켓 개발에 있어서 이제 겨우 2단 중형 로켓 개발 중간 단계에 와 있는 로켓 개발의 후진국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내 기술 수준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1978년 9월 백곰 유도탄 시사회 성공 소식이 도하 신문에 큰 기사로 활자화 된 때가 있습니다.

이 때의 백곰 유도탄은 1단에 추진기관 4개가 한 묶음으로 된 로켓이었고 2단은 1개의 추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 4개로 묶여진 1단 로켓이 연소된 후 유도탄 본체에서 즉, 2단 로켓트와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2단 로켓이 점화되는 장면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개발된 유도탄은 배치되었다가 이미 신형으로 교체된 바 있으며 5월 15일자 기사의 중형 로켓 1단은 1978년 당시 개발된 백곰 1단 추진기관 4개 중에 1개 정도에 해당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80년대 말 독자적인 유도탄 개발이 좌절된 후 국산 로켓에 대한 열망은 '90년에 들어서야 항우연이 중심이 되어 이어져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어처구

니없는 내용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 없는 국방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난 5공정권 시절 이미 언급한 '백곰 유도탄이 국내 제작 생산된 것이 아니고 외국 제품에 페인트만 칠해서 국산으로 위장한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소리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전과 어려움의 북새통에서도 유도무기 개발의 속도가 주춤한 적은 있어도 맥이 끊긴 적은 없습니다.

그 실례로 언급된 백곰은 이미 개발된 지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구시대의 유도탄으로 되어 버려 이미 국내에서도 사라져 간 상황입니다.

이는 개량된 더 성능이 우수한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유도탄 개발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또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산 체제가 붕괴되어 가고 평화 공존 시대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공격은 하지 않아도 방어 능력은 확보되어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이를 알고 있을 관계 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중단되었다고 어떻게 신문 기사화 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작년을 포함한 최근 국군의 날 행사시 전시되는 유도무기를 본적은 있는지 생각해 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1992년 개최된 유도무기 학술대회에서 '추진기관 분야의 개발 과제'라는 제하에 관련 기술부문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으며 그 내용은 동년 월간 <국방

과 기술>誌 9월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유도무기 학술대회가 매년 각 전문 분야별로 채택되어 개최되고 있으며 다시 3년 후인 1995년에도 유도무기 추진기관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관련 기술이 논의, 토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학문과 기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언급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어떠한 유도무기가 개발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없음을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실정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께서 혹시 “국과연에서는 유도탄 개발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구심과, “그렇다면 국과연에 연구개발비를 주지 말고 항우연에다 연구개발비를 주고 거기서 개발하라고 하지”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항우연 과제는 어차피 대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홍보가 용이한 상황에 있습니다. 홍보 그 자체나 기사화에 대해서는 이 글을 쓰는 저나 국과연에서 논할 사항

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이 사실이어야 하고 또 국과연과 관련된 모르는 사항이 사실인양 언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MTCR 규정과 한·미 협정을 준수하면서 우리 유도무기, 로켓 기술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소리 없이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작은 지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防**

93년 발사에 성공한 국산 관측로켓 과학 1호

